가을 풍경화 속 '빵빵대잔치'

많은 시민 참여해 제과 제빵 이해 넓히는 계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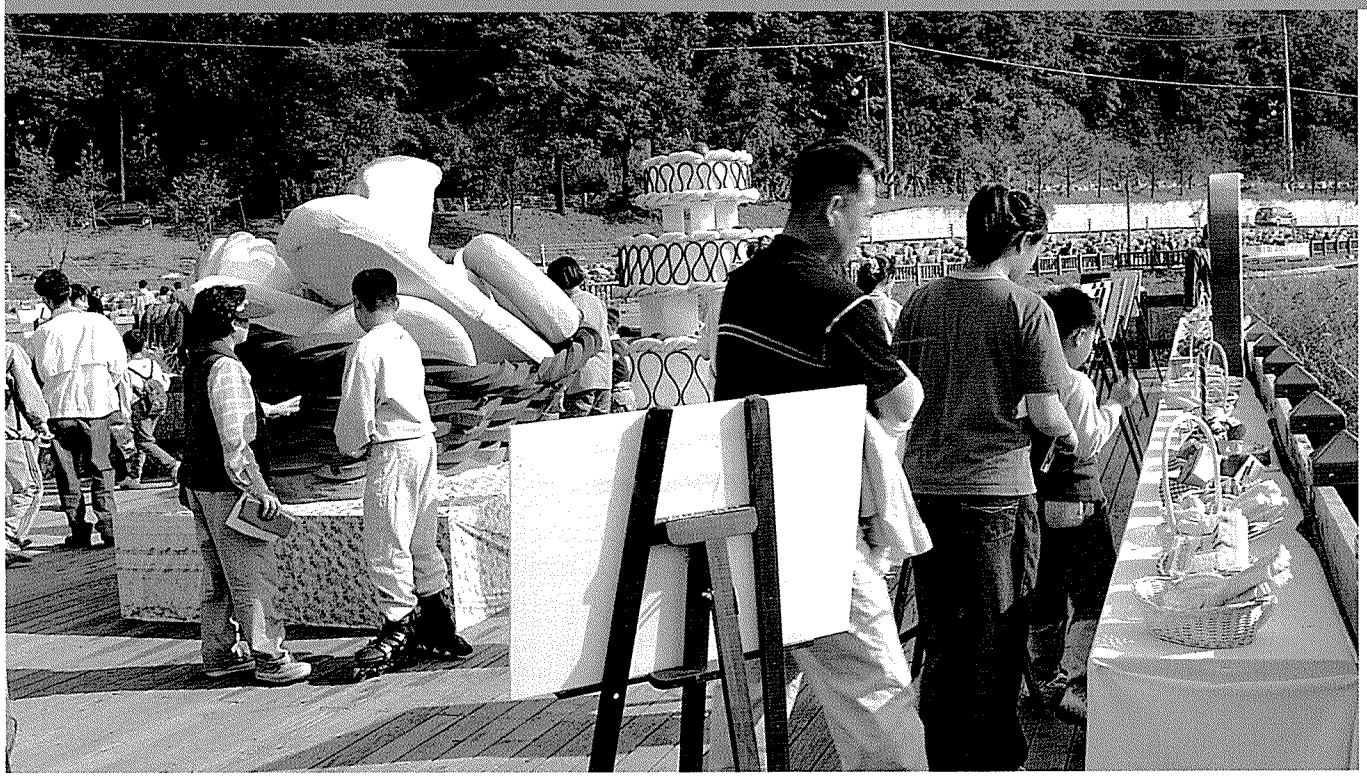
- 따사로운 햇살이 푸른 호수에 내려앉는 가을 풍경화 속에 빵 내음이 가득 -

가을이 무르익는 10월의 한자락. 성남시 율동자유공원에서는 10월 14일, 15일 이틀간 제1회 성남빵빵대잔치가 시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개최됐다. 이 지역의 제빵 업체인 샤니, 파리크라상, 고려당과 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성남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과 제빵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넓히고 다양할 볼거리를 제공한 의미있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드넓은 휴식 공간과 호수를 끼고 있어 휴일이면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율동 공원에서 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 관람객 동원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또 3개 업체가 부스를 마련해 무료 시식, 경품 행사, 제품 소개를 실시하는 한편 30여m 떨어진 호수 주변에 각종 빵과 케이크를 전시함으로써 행사 내용 면에서도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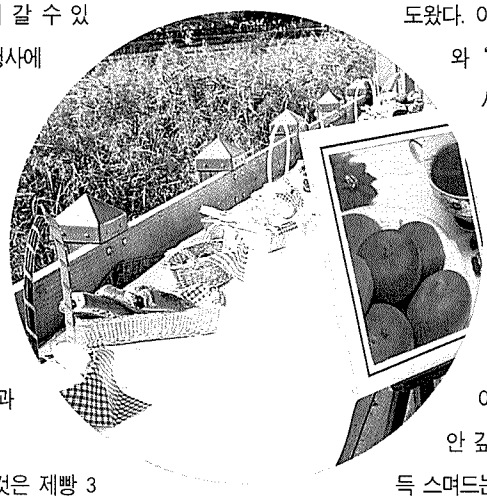
다양한 행사 내용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

제1회 성남빵빵대잔치에서 샤니는 행사 기간 동안 캐릭터빵과 가맹점 '따삐오'를 집중 홍보했다. 양산 제빵 시장의 마케팅 성공 사례로 꼽히는 캐릭터 접목 상품인 몬스터빵을 비롯해 새로 출시하는 '디지몬' 빵 등 206개의 캐릭터를 선보여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따삐오'는 가맹점 홍보를 위해 오븐을 설치하고 즉석 제조한 빵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했다.



파리크라상은 쇼케이스를 설치하고 각종 케이크를 홍보하는 한편 오븐을 설치하고 갖 구운 빵을 제공했다. 이밖에 쿠폰을 배포해 당첨된 사람에게 3회 총 60여개의 케이크를 제공했으며 케이크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고려당도 완제품 무료 시식을 실시하는 한편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행사는 파리크라상과 고려당이 개최한 예쁜 케이크 만들기 행사였다. 주최측에서 미리 마련한 시트와 생크림으로 자신이 원하는 케이크를 만드는 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와 부모는 크림이 얼굴에 묻어도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가져 갈 수 있어 1시간 단위로 3회 실시된 케이크 만들기 행사에는 관람객의 줄이 계속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행사 중간 중간 중앙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치어걸의 춤이 이어졌고, 저녁 무렵에는 연예인 사회자의 진행 속에 초청 가수 공연이 실시됐다. 또 빵빵대잔치 행사를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대회가 열려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이날의 즐거움과 맛있는 빵·케이크에 대한 기억을 심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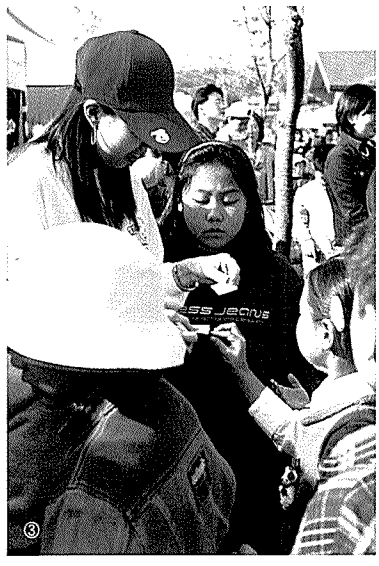
이번 제1회 빵빵대잔치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제빵 3사가 마련한 야외 빵·케이크 전시관이었다. 행사장 주변에 마련된 전시관은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갈대 숲과 가을 햇살이 수면에 반짝에 반짝이는 호숫가에 설치돼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했다. 주최측은 멀리서도 보이는 빵과 케이크 형태의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전시관으로 옮겨 오도록 유도했다.

호숫가 전시, 일반인 이해 넓혀

야외 빵·케이크 전시관에는 관람객들의 이동 통로를 따라 동물빵·식빵·케이크·쿠키·바게트·페이스트리·단과자빵을 진열했다. 또 빵의 역사와 이와 관련된 격언, 재료 및 제품 설명을 곁들인 안내판을 설치해 제과 제빵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도왔다. 이밖에 중세 시대에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던 도구와 '주노명베이커리', '마르셀의 추억',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 빵·케이크가 등장하는 영화 포스터를 전시해 흥미를 더해 주었다.

이색적인 경험을 한 시민들은 이번 행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이 행사를 정례화하고 빵의 날을 제정하는 등 지역 문화 행사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흥겨운 음악과 즐거운 표정이 가득한 행사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동안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으로 구수한 빵 내음이 가득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글/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① 고려당의 케이크 만들기 행사,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가져 갈 수 있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② 각종 빵·케이크 전시는 물론 빵의 역사, 제품의 특성을 안내해 일반인의 이해를 도왔다.
③ ④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무료 시식, 캐릭터 씰 제공으로 관람객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⑤ 치어걸의 춤, 초청 가수 공연도 곁들여져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